



제43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건달들이 일찌감치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제42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전한 마라토너들이 합쳐져 출발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15일까지 신청 접수

# “마음은 벌써 출발선에”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일제식민통치에 항거해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시·도민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인과 단체의 참가 신청이 줄을 잇는 등 대회 열기가 뜨겁다.

지역민들은 벌써부터 광일마라톤 홈페이지(http://maraton.kwangju.co.kr)나 전화 등을 통해서 참가방법과 코스등을 문의하며 대회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풀·하프·10km·5km

단체팀 참가비 할인

전부문 30위까지 시상

참가자에 경품 푸짐

▲코스 및 시상=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출발점으로 하는 대회 코스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등 4개 코스다. 참가자격은 신체건강한 남·여노소로 초등학교생은 5km, 중학생은 10km까지만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한육상경기연맹 등록선수수는 시상에서 제외된다.

풀코스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출발-삼마장-마재중흥아파트1차(10km반환점)-서구문화센터-제2순환도로 옆길-서창교차로(하프반환점)-극락강 독길-서창파출소-대촌지대촌사거리-고씨마을놀이 전수관-남평교(풀반환점), 이후 동일 주행선으로 끝나는 코스다.

하프코스와 10km코스는 풀코스와 같은 코스로 주행-반환점까지 진행-동일 주행선으로 끝나는 코스다.

5km는 월드컵 경기장-원광대병원4거리-삼마장-짚뽕터널 입구-월드컵 경기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시상은 풀을 늘려 보다 많은 참가자들에게 시상금이 돌아갈도록 했다.

개인시상은 전부문 1~30위까지 시상한다. 풀코스 남·여 1~3위는 상금 각각 50만

원, 40만원, 30만원과 상장, 트로피를 제공하고 4~30위까지는 상장과 부상품을 수여한다.

하프코스는 남·여 1~3위까지 각각 상금 40만원, 30만원, 20만원과 상장, 트로피를 제공하고 4~30위까지는 상장과 부상품을 수여한다.

10km 남·여 1~3위는 각각 상금 30만원, 20만원, 15만원과 상장, 부상품을 주며 4~30위까지는 상장과 부상품을 수여한다.

5km 남·여 1~3위는 각각 상금 20만원, 15만원, 10만원과 상장 트로피를 수여하고 4~30위까지는 상장과 부상품을 준다.

특별상으로는 최고령 참가자상(10km이상 각 부문별 남·여 각 1명씩)과 원광부부상이 수여되는데 안주자(5km 부문 제외)에 한해 제공한다.

또한 포토제닉상과 행운상(대회 43회를 기념해 참가자중 사전추첨을 통해 43명 시상)등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참가비는 풀·하프·10km는 3만원이며 5km는 1만원, 마니아부는 1만 5천원이다. 20인 이상 단체참가자는 10% 할인이 되고, 50인 이상은 20% 할인 우대해 준다.



▲신청 방법=접수순으로 각 부문 인원제한은 없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참가비를 무통장 입금한 뒤 광일마라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FAX(062-222-0195)를 이용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무등빌딩 16층 광주일보사 문화홍보국에서 받는다.

입금계좌는 ▲농협 617-17-002371 ▲광주은행 001-107-437903 등으로 예금주는 광주일보사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7연승 저지



### 여자부 흥국생명, GS칼텍스 3-0 제압

프로배구 대한항공 점보스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의 상승세를 잠재웠다.

대한항공은 6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7-2008 V-리그' 남자부 3라운드 홈경기에서 보비(29득점)와 강동진(15득점), 장광균(14득점)을 앞세워 박철우(22득점)가 분전한 현대캐피탈을 폴세트 할투 끝에 세트스코어 3-2(25-15 25-23 24-26 19-25 15-13)로 물리쳤다.

대한항공은 2라운드 중반부터 주전자리를 쥔 센터 김명석이 재치있는 볼 배급으로 현대캐피탈의 높은 블로킹 벽을 허물었고 리베로 최부식과 레프트 장광균, 강동진을 중심으로 탄탄한 수비가 돋보였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라운드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당한 패배를 설욕하면서 8승3패로 삼성화재(10승1패)에 이어 2위를 고수했다.

반면 외국인 공격수 없이도 최근 6연승의 상승세를 탔던 장신군단 현대캐피탈은 일격을 당하면서 7승4패로 3위를 유지했다.

아마초청팀끼리 대결한 수원에서는 한국 전력인 양성만(27득점)과 정경호(16득점)를 내세워 이강주(20득점)가 활약한 '불사조' 상무를 3-2(22-25 25-20 20-25 25-22 15-13)로 누르고 2승9패를 기록, 최하위에 서 버텼다.

이어 벌어진 여자부 경기에서는 흥국생명이 김연경(29득점)과 마리 헬렌(13득점), 황연주(12득점)의 막강 화력으로 정대영

(12득점)이 버틴 GS칼텍스를 3-0(25-17 25-17 25-13)으로 가볍게 눌렀다.

흥국생명은 8승1패로 KT&G와 승패가 같지만 점수득실률에서 앞서 다시 1위에 복귀했고 GS칼텍스는 4승5패로 승률 5할 아래로 떨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필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매매	골프장	시세/매매
광주	3,450	충청	1,700
남양주	4,400	광주	1,900
승주	8,200	도당	2,100

상담 문의 (062)351-0095

## 박지성 70분 출전...맨유 FA컵 32강행

'돌아온 산소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맨유가 부상 복귀 후 두 번째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연결하지 못했다.

맨유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웨인 루니의 연속골로 애스턴빌라를 2-0으로 제압, 잉글랜드 FA컵축구 32강에 진출했다.

박지성은 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열린 2007-2008 FA컵 3라운드 애스턴빌라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했다.

9개월 만의 컴백 이후 세 번째 경기에 나선 박지성은 전반 활발한 활동량을 보이며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해 1월17일 1골, 1도움을 올렸던 상대인 애스턴빌라를 맞아 컴백 첫 골을 넣겠다는 의지도 강해보였다. 페널티박스 안으로 자주 들어가 기회를 엿봤지만 패스가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수비 가담에도 적극적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허정무호 30일 서울서 칠레와 평가전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한 허정무호가 오는 30일 서울에서 칠레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를 통해 첫 선을 보인다.

국제축구연맹(FIFA) 홈페이지에도 A매치 일정에 30일 한국과 칠레가 서울에서 친선경기를 갖는 것으로 돼 있다.

다음달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투르

르메니스탄과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첫 경기를 갖는 허정무호로서는 칠레와 맞대결이 선수들의 경기력 점검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허 감독은 "선수들이 시즌 종료 후 장기 휴식을 가졌고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다. 월드컵 예선에 앞서 평가전을 갖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 최경주 4오버파 30위

PGA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3R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개막전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1, 2라운드에서 죽을 췌던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3라운드에서 예전 실력을 되찾았다.

최경주는 6일 하와이주 마우이섬의 카발 투어리조트 플래티넘 코스(파73.7천41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9타를 때려내 합계 4오버파를 기록했다.

1라운드에서 고작 1개, 그리고 2라운드에서 3개 뿐이던 버디가 다섯개로 늘어났고 버디보다 더 많았던 보기는 단 1개로 줄어 세게랭킹 9위의 실력을 사흘만에 되찾았다.

그러나 같은 공동29위였던 폴 고이도스(미국)와 부 윌리엄스(미국)가 각각 6타와 5타를 줄인 바람에 이들에게 1타 뒤진 최경주는 전날보다 한 계단 떨어진 30위(4오버파 223타)로 내려앉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